

군산시간여행축제 온택트로

‘리멤버 그리고 비긴 어게인’ 주제 관광객 관심 유발 추억사진 이벤트 · 슬로건 공모전 등 프로그램 풍성

군산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온택트 시간여행 축제 관광주관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0 온택트 군산시간여행 축제관광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관광주간은 리멤버 그리고 비긴 어게인(Remember &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지나간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돌아보고, 오는 2021년 축제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된 제8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대신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작은 이벤트이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은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 2021 축제 슬로건 공모전, 랜선 군산향 밥부두 공쿠르와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영상모음이다.

리멤버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억사진 이벤트는 1회부터 7회까지 군산시간여행축제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이벤트로 선착순 500명에게는 코로나 안전7러미를 제공한다(군산시간여행축제와 관련된 추억 사진이 있다면 바로 응모해보기 바란다). 기존에 시간여행축제를 찾지 않았더라도 올해 축제관광주간 전시장을 방문한 인증사진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또 2021 축제 슬로건 공모전은 북북튀는 문구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이벤트로 심사와 추첨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 시간여행 기념품 등을 제공하며, 랜선 군산향 밥부두 공쿠르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표 경연 프로그램으로 예선, 본선이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본선은 축제관광주간 전자제로 라이브 중계가 이뤄지며, 추후 축제관광주간 기간동안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영상 등과 같이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에서 계속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역사를 주제로 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축제관광주간동안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대에서 우리나라 국가등록문화재 태극기를 선보인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안중근 의사 그리고 태극기라는 주제로 안중근 의사의 태극기를 포함해 20여종의 근대 태극기를 통해 시간여행축제의 저향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는 산북동 해이마을사랑방 신축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의 친목과 여가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군산 산북동 해이마을사랑방 신축공사 완료

해이마을 사랑방 신축공사가 완료되며 마을재생을 위한 뉴딜사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산북동 해이마을사랑방 신축공사가 완료돼 주민들의 친목과 여가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해이마을사랑방은 산북동 154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76㎡ 규모, 지상 2층으로 건축됐으며 1층은 마을사랑방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해이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갈수록 쇠퇴하는 도시와 마을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활력을 위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왔다.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해이마을 사랑방 조성사업은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 재생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기간 도시재생과장은 "지역주민의 고령화로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해이마을 사랑방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여가공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명품 주거단지 조성 '탄력'

마동 · 모인 · 소라공원 보상 절차 착수... 공동주택 건립도 본격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도심권 대규모 공원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공원과 공동주택이 어우러진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마동, 모인, 소라공원이 최근 감정평가를 끝마치고 보상 절차에 착수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동공원은 329필지(23만8,455㎡), 지장물 397건, 모인공원 498필지(12만 3,918㎡), 지장물 138건, 소라공원은 141필지(20만7,965㎡), 지장물 1,738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격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 전북도에서 추진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와 함께 수도산공원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협의를 준비 중이며 팔봉공원(1지구)은 현재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준비하는 등 도심권 근린공원 5곳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권 내 대규모 도시숲 조성으로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원과 더불어 공동주택 건립도 본격화된다. 마동공원 GS자이 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1,515세대, 모인공원 중흥 S플러스 968세대, 팔봉지구 서희 스타힐스 2,330세대, 소라공원(시공사 미정) 1,357세대 등 약 8,000여 세대가 도심권에 조성될 계획이다. 마동 · 수도산공원은 내년 상반기, 모인 · 소라공원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며 팔봉1지구는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이 연이어 사업착수 계획을 알리며 따라 익산시는 여의도 면적의 약 55%(1.6㎢)에 달하는 공원 지역이 새 단장을 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서 '익산시 발전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익산시 발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차신태)를 방문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의 대학 방문은 익산시 및 대학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익산시 발전을 위한 간담회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강태순 기획행정국장, 이범용 경제관광국장, 모순영 기획예산과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차

신태 학장, 이종래 교학처장, 하태선 행정처장, 김용욱 산학협력처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익산시 점입인구 증가 추진 방안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방안 등 익산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현을 시장은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인력 수급과 익산시 인구 증가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울러 정 시장은 오는 10월 말 개관 예정인 창의융합기술센터 러닝팩토리(Learning Factory) 구축 현장과 대학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직업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익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일자리 정책 전국평가 '우수'

고용창출 환경조성 노력 인정

군산시 일자리정책이 전국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새로운 고용창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 받았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2012년부터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는 제도다.

군산시는 올해 '우수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도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군산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위기의 이슈를

상생의 이슈로'를 목표로 삼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고용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으며, 중앙장부 및 전북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 투입할 신산업, 시민밀착, 청년일자리 등 5대 집중 분야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노사민정이 힘을 합친 전가치 클러스터 상생형 일자리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내 미래성장산업 연관기업들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내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주력 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동반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배달의 명수 등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키는 선순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과 동네상가를 활용한 문화강화 시책인 동네문화카페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강사역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내 반려동물임시놀이터 조성

익산시가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임시놀이터를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임시놀이터는 중앙체육공원 내 조성됐으며 오는 12일부터 운영된다. 189㎡ 규모의 임시놀이터는 반려동물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으며 소형견과 중 · 대형견이 분리될 수 있도록 안전설비도 함께 갖추어 놓았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운영에 앞서 반려동물 임시놀이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반려동물 임시놀이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원 활성화와 반려동물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책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됐다.

시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배설물 등의 악취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멘토캠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취업에 준비하는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의 취업역량 및 직무이해도 향상을 위한 '2020년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캠프'를 최근 교내 프라임관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 직무 내용 및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현지자들에게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멘토캠프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청년들이 취업역량 향상을 통해 양질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멘토는 모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정세준(삼성화재) 동문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멘토들은 학생들의 관심 기업과 직무, 자신의 취업준비 활동을 비롯해 참석한 학생들이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관해 설명하고, 직무를 소개하는 등 후배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